

## 연금시장리뷰 43호

연령별 은퇴 준비를 위한 조언-1

-20대와 30대를 위한 조언 <첨부자료>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

-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.
-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현대경제연구원 : 정민 연구원 (02-2072-6220, chungm@hri.co.kr)  
한재진 연구위원

---

## □ 연령대별 은퇴를 준비 위한 조언<sup>1-1</sup> - 20대와 30대를 위한 조언

---

붕괴되었던 시장은 다시 회복하고 있다. 현재 은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성(Uncertainty)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득이 될 것이다. 아직 20~30 대는 노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
만약 당신이 20 대 라면

1. 좋은 습관과 장기적인 계획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.
2. 좋은 습관을 길러라
3. 빚을 스마트하게 활용해라
4. 더 이상 비싼 학비를 지불하지 말라
5. 401(K) 플랜에 가입해라
6. 신용등급을 쌓아라

만약 당신이 30 대 라면

1. 은퇴계획을 위한 중요한 나이
2. 예산을 만들어라
3. 일단 자신을 위해 지출하라
4. 529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에 들어라
5. 충분히 보험에 가입해라
6. 집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라

---

<sup>1</sup> 본 보고서는 TIME지의 "Planning For Retirement at any Age"를 보고 요약한 자료임. 이번 호에서는 20대와 30대를 위한 조언이 발간되고 다음 호에 40대, 50대, 60대를 위한 조언이 연계되어 발간 예정임.

## I. 20 대

### ○ 좋은 습관과 장기적인 계획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.

- 물론 계획 한 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당신이 20 대라면, 은퇴를 준비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임
  - 예를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, 당신의 단기적 목표 달성과 단기적 수익은 불경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도 있음
  - 또한 수많은 60 대들이 인력시장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하고 있어 고용시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.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곧 사라질 단기적인 문제들이고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젊기 때문에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
- 최선의 선택: 최근 몇 년간의 시장붕괴가 당신과 당신의 초라한 은행계좌에 주는 피해는 제한적임
  - 어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자산가격의 하락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임
  - 최근 몇 년간의 자산가격의 가파른 하락세는, 향후 장기적이고 꾸준한 고수익을 가져다 줄 예금을 시작할 시기임을 의미함
- 역사적으로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시장은 지금처럼 잔혹한 불경기 속에서 침체된 주식 시장을 벗어난 후에 형성 되었음. 시장은 곧 다시 살아날 것임
  - 시장이 불경기의 끝을 감지할 때 주식의 가격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임. 그러한 변곡점은 지난 3 월에 도달했음
- 주식은 지난 10 년 동안 '데드 머니(Dead Money)'였음. 실적 저하의 기간 뒤에는 실적 향상의 기간이 오고 이러한 과정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음

### ○ 좋은 습관을 길러라

- 돈을 쓰는 습관은 주로 어릴 적에 길러짐
  -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면서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면, 당신의 계좌는 곧 풍요로워질 것임
  - 또한 많은 당신의 친구들이 겪을 빚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여 줄 것임
- 수시로 당신의 은행 계좌를 체크하고, 갚아야 할 돈은 제 때 지불하며, 신용카드는 항상 일시불로 지불해야 함
- 아무리 소량의 돈이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월급에서 별도로 분류해 저축해야 함
  - 능력 밖의 지출을 삼가 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은 자제해야 함
  - 그 대신에 저축은 꾸준히 해야 함. 먼 미래에 당신은 반드시 이로 인해 큰 만족감을 갖게 될 것임
- 생일 또는 특별한 날, 부모님께 받는 작은 선물 대신, 차라리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에 입금 해줄 것을 부탁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임

○ **빚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라**

- 모든 빚이 다 나쁜 것은 아님
  - 예를 들어 면접을 위해서 새로운 정장을 사야 한다면 혹은 미래에 보다 월급 수준을 위해 수업을 몇 개 수강 해야 한다면 해야 함. 자기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함
  - 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혹은 관심있는 사업 투자도 좋은 방법임
  - “건설적인 빚은 나중에 너에게 더 큰 수입을 안겨줄 수 있다”라고 Gibraltar Private Bank & Trust의 금융 플래너 일레인 킹 (Elaine King)도 말했음
  
- 하지만 킹은 생활에 지장을 주는 빚은 삼가해야 한다고 한다 조언하고 있음
  - 예를 들면,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다거나 꿈에 그리던 파리 여행이 좋은 예임
  
- 금리와 각 카드사의 연체 수수료도 꼼꼼히 체크해야됨. 추가적인 이자 비용과 연체 수수료는 지급시한만 확실히 지킨다면 대부분 피할 수 있음
  
- 당좌 예금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돈이 지불되도록 설정해두고, 매번 고금리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함. 즉, 학자금 대출을 제일 마지막으로 갚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
  - 왜냐하면 정부 학자금 대출 보조의 혜택을 받으면 대출 이자율이 기준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부담 없이 대출 상환 기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임

○ **더 이상 비싼 학비를 지불하지 말라**

- 고용시장이 점점 악화되면서, 많은 젊은이들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에 대비해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음. 나쁜 생각은 아님
  
- “하지만 이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면, 졸업 혹은 교육과정 이수 후 얼마나 더 높은 수입을 얻을지 체크 해보기를 바란다” 라고 Summit Wealth Advisor의 금융 플래너 케빈 메한 (Kevin Meehan)은 충고함
  -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10 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립대학에 진학했다고 가정해보자. 졸업 후 그 돈을 단기간에 갚기엔 역부족임. 반면에, 만약 당신이 의학이나 법학을 선택한다면 어떨까? 졸업 후 빚을 갚을 수 있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임

## ○ 401K 플랜<sup>2</sup>에 가입해라

-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연금 플랜들은 최근 들어 맹비난을 받고 있음. 그 이유는 기업들이 제대로 연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임
- 하지만 당신이 어딘가에 저축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01(K) 에 가입해라
  - 401K 플랜은 세전 수익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, 고용주로부터 일정 비율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음
- 401(k)플랜은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 세금을 내는 은퇴 시점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함
  - 또한 세후 수익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과세 개인연금에 저축하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꼼꼼히 체크해 투자 해야 함

## ○ 신용등급을 쌓아라

-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, 차나 집을 사려고 대출받을 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함
  - 또한 구직 시 경쟁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임. 과연 어떤 오너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겠는가?
- 3 가지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- 마스터 혹은 비자, 주유 전용 카드, 백화점 전용 카드
  - 각각의 신용카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카드 한도의 1/3 이상은 초과하지 말아야 함
  - 카드 값은 일시불로 내고, 반드시 기한 내에 결제해야 함
- 신용 등급을 체크해주는 곳 (Trans Union, Experian 혹은 Equifax 같은 곳)에서 최소한 1 년에 한번씩 신용 등급을 확인 해야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함

## II. 30 대

### ○ 은퇴 계획을 위한 중요한 나이

- 만약 당신이 30 대라면, 지금부터는 매우 진지하게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함. 단, 당신이 단 한번도 세심하게 당신의 잠재적인 수익,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혹은 모든 저축/신용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임
  - 지금이야말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임. 왜냐하면 지금부터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,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임
- 아인슈타인은 "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복리(複利 compound interest)다"라고 말했음

<sup>2</sup> 401(k) Plan: 미국의 401(k) 퇴직연금을 뜻하는 용어임. 401(k)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, 그 관리는 종업원이 책임지는 연금이다. 즉, 퇴직금의 지급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임.

- 하지만 이 마법은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했어야만 가능하며 저축을 미뤘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함
  - 만약 20 세 때 매년 5,000 달러 비과세 개인 적금을 들었다면, 당신이 65 세 때 이미 190 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임 (연리 8% 금리)
  - 하지만, 만약 당신이 30 세 때 비과세 개인 적금을 든다면 매년 1 만 1,200 달러 씩 저축을 해야 65 세 때 동일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, 40 세 때 매년 2 만 6,400 달러 저축해야 하는 것임. 미리미리 시작할수록 저축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
  - 20 세에 시작한 평생 기여는 도합 22 만 5,000 달러이고 30 세에 시작하면 도합 39 만 2,000 달러이며, 40 세에는 도합 66 만 달러가 되어 다소 충격적임
  
- 30 대 라면 추가비용 없이 은퇴 준비가 가능한 시기임. 그리고 위에서 계산했던 방법보다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음
  
- 왜냐하면 만약 지금 네가 시작한다면 최근 떨어진 주식을 싸게 매입해 나중에 고수익을 얻을 것임
  
- 땅을 사는 것도 비슷함
  - 장기적인 값 싼 땅을 사두는 것도 괜찮음 - 물론 지난 10 년처럼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땅이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
  - 모기지 이자는 소득공제가 되며 처음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8,000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도 돌아옴. 세금공제는 12 월 1 일 만기되지만 분명히 연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혜택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큼
  
- 당신의 인생에서 30 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
  - 보통 30 대가 정착을 준비하고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는 나이임
  - Province R.I 의 금융 플래너 대니얼 포브스 (Danial Forbes)는 30 대는 “이기적인 시절 (10 대~20 대)에서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전환점” 임
  - 만약 당신이 지금 가장이라면 십분 공감할 것임. 당신의 가족들은 단순히 당신에게만 의지하는 것을 떠나 아이들 교육에 대해 장기적인 고민과 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줄 안정된 노후를 계획하기 때문임

## ○ 예산을 만들어라

- 첫 단계는 한달 동안 가계부를 10 원 단위까지 자세하게 적는 것임
  - 참을성을 가지고 2-3 달 동안 지속해야 함
  - 몇 개월 후에는 자동차 수리비 같은 평소에는 잘 소비되지 않는 지출도 생기면 꼭 적을 것
  - 이렇게 훈련하면, 당신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파악되어 쉽게 과소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임. 또한 반드시 장기적인 저축과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함

## ○ 일단 자신을 위해 지출하라

-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401K 플랜으로 가입 하는 것임
-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익을 얻음
  - 첫 번째, 당신이 돈을 만지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저축하는 셈이고, 적어진 순 수입 덕분에 당신 소비는 저절로 감소될 것임
  - 두 번째로는 주식 가격이 높든 낮든 좋은 주식을 더 구입하게 되는 결과임
  - 물론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구입한다면 당신은 더 많이 재산을 갖을 수 있음
- 과세이연, 비과세 그리고 세금 연금 이론에 상관없이 개인 연금에 지불하는 것은 좋은 방법임. 만약 세금 관련 법규가 많이 변한다면 이 계좌들 중에 당신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

## ○ 529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에 들어가

- 이걸 당신이 아이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됨. 하지만 학자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시작하지는 못할 것임
- 영국 보수당은 향후 15 년 뒤 4 년제 공립대에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이 10 만 달러 소요된다고 예측함. 다행히도, 529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은 인상될 등록금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플랜임
  - 주에서 지원하는 이 플랜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(기숙사, 새로운 컴퓨터 같은 학용품)을 절감해줌
  - 모든 주가 529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을 실행하고 있으며 세금 혜택도 다양함

-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입자는 연방세금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는 세금공제가 됨
  - 어떤 주에서 이 플랜에 가입하고 그 돈을 당신이 선택한 어떤 주에서도 사용 가능함
- 이러한 플랜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
  - 당신의 아이가 몇 살 이든 상관없이 이 계좌를 관리 할 수 있음
  -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이 가능함
  -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연령 및 소득제한도 없으며,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당신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경우 다 사용하지 못한 돈은 아무런 위약금 없이 출금할 수 있음

### ○ 충분히 보험에 가입해라

- 만약 당신에게 배우자와 아이가 있다면,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들어줘야 할 시기임
- 보험을 들지 말아야 함. 건강한 30 대 남성이라면 최대 백만 달러가 보장되는 연간 1,200 달러 짜리 보험에 가입해야 함
-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는게 좋음
  - 왜냐하면 만약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사망한다면 보험금으로 당신의 모기지를 비롯한 다른 빚을 갚을 수 있음
  - 또한 학비 같은 큰 비용 항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당신 월급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있음
-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먼저 당신의 직장에서 어떤 옵션을 제공할지 확인해야 함
  -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어도 상해 60 일 정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상해 보험을 제공됨
  -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절반은 당신의 월급 60%정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옵션이 확대된 보험을 제공함
- 그러나 당신은 개인 상해 보험을 통해 월급의 80% 이상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항목추가도 가능함
  - 보험의 가격은 싸지 않음. 당신은 65 세까지 매달 3,500 달러를 지불하는 보험 약관을 위해 연간 약 1,100 달러를 지불 해야 함

○ 집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라

- 집은 단순히 거주지 이상이며 보통 개인이 은퇴할 때 가장 큰 재산이 됨. 많은 세금과 유지비도 들고, 가격도 비싸며 옮기기도 힘들. 그래서 최소한 5 년 이상 (가능하면 적어도 10 년 이상) 그곳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집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임
  
-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, 집값은 보통 매년 5% 정도 오름. 10 년 뒤, 만약 당신이 집을 팔지 않을 계획이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셈임
  
-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가장 저렴하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, 긴급한 상황시 지출을 줄일 수가 없다면 집을 담보로 역 모기지론을 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음
  - 일리노이 Itasca 의 Summit Wealth Advisor 금융 플래너 캐빈 메한은 “30 대에에 집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- 만약 당신의 자금 여유와 생활 습관에 자신있다면 말이다” 라고 말함
  
- “하지만, 만약 당신이 지나친 낭비벽에 모아둔 돈이 없다면 집을 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.” 라고 말함

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원(02-2072-6220, chungm@hri.co.kr)  
한재진 연구위원

**주요 국내외 경제지표**

□ 국내외 성장률 추이

구분	2009년					2010					2011년 연간(E)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	
미국	-2.6	-4.9	-0.7	1.6	5.0	2.9	3.7	1.7	2.6	3.2	2.5
유로 지역	-4.1	-2.5	-0.1	0.4	0.2	1.8	0.4	1.0	0.4	0.3	2.0
일본	-6.3	-20.1	10.8	-1.9	7.3	3.9	6.0	2.1	3.3	-1.1	-0.7
중국	8.7	6.2	7.9	9.1	10.7	10.3	11.9	11.1	10.6	9.8	9.6
한국	0.2	-4.3	-2.2	1.0	6.0	6.2	8.5	7.5	4.4	4.7	4.3

주: 1) 2011년 전망치(E)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

2) 미국,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, EU는 전기대비, 중국,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.

□ 국제 금융 지표

구분		2009년말	2010년		2011년		전주비
			6월말	12월말	8월 12일	8월 18일	
해외	미국 10년물 국채 금리(%)	3.83	3.89	3.30	2.26	2.06	-0.20%p
	엔/달러	92.93	88.43	81.19	76.85	76.54	-0.31₩
	달러/유로	1.4413	1.2238	1.3350	1.4225	1.4434	0.0209\$
	다우존스지수(p)	10,428	9,774	11,578	11,269	10,991	-278p
	닛케이지수(p)	10,655	9,383	10,229	8,964	8,944	-20p
국내	국고채 3년물 금리(%)	4.41	3.86	3.38	3.49	3.56	0.07%p
	원/달러(원)	1,164.5	1,222.2	1,134.8	1,078.5	1,074.0	-4.5 원
	코스피지수(p)	1,682.8	1,698.6	2,051.0	1,793.3	1,860.6	67.3p

□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

구분		2009년말	2010년		2011년		전주비
			6월말	12월말	8월 12일	8월 18일	
국제 유가	WTI	79.35	75.77	91.40	85.38	82.02	-3.36\$
	Dubai	78.06	73.14	88.80	102.28	105.04	2.76\$
CRB 선물지수		283.38	258.52	332.80	326.53	326.42	-0.11p

1) CRB 지수는 CRB(Commodity Research Bureau)사가 곡물, 원유, 산업용원자재,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.  
(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제공)